



THE GOSPEL NEWS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110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 03-3202-5398
 発行人/趙重來・編集人/金柄鎬
 fukuinshinbun@kccj.jp (福音新聞)
 info@kccj.jp (総会事務局)

2014年 新年メッセージ

たとえ、暗黒が国々を包んでいても

(イザヤ60:1～3)

趙重來牧師(総会長、船橋教会)



カーネルハーランドサンダース(Colonel Harland Sanders)は、6歳の時に父を失い、夜遅くまで働いて母に代わって幼い二人の弟たちに料理をして食べさせ、家事をしながら多くの苦勞をして、老年になった時、子供の頃から夢見ていたレストランを開店して繁盛しました。

しかし喜びもつかの間、レストランの前に高速道路ができ、お客が減って1年位で閉店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時が65歳、ポケットのお金は社会保障金として受け取った105ドルだけでした。そのお金で夢見てきた料理を開発して多くの食堂に見せましたが失敗しました。しかし、全米を回りながら調査と挑戦を続けました。時には、狂った人だと誤解も受けました。それで1008回を失敗して、再度挑戦した1009回目に彼が作った料理を買うというレストランが現れました。料理を食べた人々は感動して、KFC 1号店が誕生しました。

今、KFCは全世界に店舗を広げています。彼は子供の頃持っていた夢を老年になっても、千回以上失敗してもあきらめずに挑戦して、自分の夢を達成したのです。後に、彼は「すばらしい考えを持っている人は無数に多い。しかし、行動に移した人は多くない。…人生最大の難関の後に人生最大の成功が隠れている」と語りました。世の中には夢を持った人々が多いです。しかし、「難しい。不可能である」と落胆する者には夢が達成されません。不可能な現実ですが、これを克服する者には達成されます。

本文は、神さまがイスラエルの民がバビロン捕囚の生活を終えて祖国に帰還することになり、新しい国、神さまが治める国が達成されることを教えています。「散らばっていた子供たちが集まってくるようになり、顔に笑顔の花が咲くものであり、大きなラクダの群れが地を覆うものである。鳩が飛んでくるかのように、異邦人たちも来ており、彼らが持って来た宝物で国は金銀が豊かで、すべてのイスラエルの聖なる神を讃美するであろう」と言われました。イスラエルが再び選ばれ、民族的に回復され、祝福の源となり、感激と歓喜を予言しているのです。

しかし、人々はこれを受け入れませんでした。当時のイスラエルの民は、バビロンの奴隷だったので不可能な現実だったのです(2節)。

ところが、神さまは「たとえ、現実的には難しいが、必ず実現させる」と語り、「力を出して目を覚ませ」と命じられました。その御言葉を信じた者には、しばらくしてから帰還の享受を受けました。完全な成就是、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なされ、これを信じる者は、真の自由を得たのです。たとえ、現実的には不可能であるように見えても歴史は神さまの歴史です。これを信じて生きる人は、神さまの大きな歴史を得て約束された祝福を享受するのです。

わたしは、去る2009年1月に骨髄癌が見つかり、8ヶ月間入院しました。病室の雰囲気はすごく冷たくて暗い話ばかりでした。わたしは暗い話を聞かずに、ペテロが暴風を見たときには海に落ちたが、主イエス・キリストを見たときには海を歩いたことを黙想し、主を見ながら治療を受けました。退院後、これまで、主の恵みの中で健康を維持しています。

2014年の新年が明けました。希望に満ちた新年です。しかし、随所に暗闇が見えるでしょう。自分にも、家庭にも、教会にも、教団にも、国や世界のあちこちにも闇が見えるでしょう。各自の一年の旅の中で、様々なトラブルやつまづき、真つ暗な涙の夜もあるでしょう。しかし、落胆しないでください。主がおられます。「起きよ、光を放て。あなたを照らす光は昇り、主の栄光はあなたの上に輝く。見よ、闇は地を覆い、暗黒が国々を包んでいる。しかし、あなたの上には主が輝き出で、主の栄光があなたの上に現れる。」(1、2節)

世の中がどんなに暗くても、主だけがわたしたちに光を放てます。神さまが言われたことは絶対に行います。愛の神は、どのような暗闇の中でも、必ず光を当てて歓喜になるようにして下さい。わたしたちの旅がどんなに暗くても、主は共におら助けを下さい。

もし、光がなくて苦しんでいる者がいるならば、主から受けた光を照らして下さい。落胆しないで、千回も主の光、福音の光、愛の光をこの地全域に放って下さい。主はすべての人が光を受けるように願っておられます。近所の人にも照らして下さい。そのために、わたしたちをこの地と新年をいただきました。これが、神さまがわたしたちに与えて下さった使命です。「たとえ、暗黒が国々を包んでいても」。主の御言葉です。明るくて希望に満ちた新年には、主の御言葉を握って勝利する2014年になりますよう願います。

＜西南地方会＞ 研修会举行 沖縄で「預言・幻・夢」を



西南地方会（山口県＋九州7県＋沖縄県＝10教会、1開拓伝道集会）では、去る11月3日（主日）～4日（月）、教育部主催で沖縄教会において、「預言・幻・夢！」の主題で修養会を举行了。

沖縄が抱えている米軍基地周辺や沖縄戦で犠牲となった朝鮮人（1万余名）の慰霊碑などを巡る現場研修と日本基督教団沖縄教区との交流会もできた。さらに、九州から離れている沖縄教会信徒との交流と新しく長老として将立された朴在徳長老の祝いも兼ねての旅であったため、本当に意義ある修養会となった（24名参加）。

沖縄教会担任牧師である徐源亨牧師は、講師として2回の説教を通して、「我々は自分や他人にしばしば失望するが、神さまも我々に失望するだろうか」と参加者たちの信仰の視点を問いつけた。また、「我々には、急ぐ事柄と重要な事柄があるが、神に祈ること、神に信頼する事（最重要な事）から万事を図ること」を薦めた。

特別講演では、朴在徳長老（名桜大学国際学部准教授・観光学）が沖縄と朝鮮の文化・歴史を比較しながら、沖縄はわたしたちにとって朝鮮王朝時代から交流がある友好民であったことと、江戸幕府に処分された悲しい歴史であると熱く語った。

二日間、沖縄教会女性会の心にこもったおもてなしと新鮮な御言葉、さらにアジアの風と沖縄の素晴らしい自然などを満喫した恵み深い修養会であった。

（報告：朱文洪 教育部長）

＜西部地方会＞ 女性連合会 第26回 修養会開催

去る11月5日（火）～6日（水）両日間、西部地方会教会女性連合会主催による「第26回修養会」が神戸のシーパル須磨で開催された。講師は、韓国のドウレ村（두레마을）設立者であり、ドウレ教会（두레교회）設立者でもある金鎮洪牧師を迎えて、65名が参加した。

開会礼拝は、崔美恵子副会長の司会で、梁榮友牧師が「今も神様は」（士師記6：7－10）という題で説教した後、シオン合唱団による特別讃美と祝祷で終わった。講師である金鎮洪牧師は、「共同体の信仰」という主題で、第1講義では「霊的に生きよう」（ローマ8：12－14）と題し、貧民村ドウレ村での働きを語りながら、「苦難の時ほど霊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間的な考えでは解決できない」語った。



第2講義では、鄭鉉吉牧師（姫路薬水教会）の特別讃美の後、金牧師が「聖霊の火種になろう」（ルカ12：49）と題し、「私たちは、神様からいただいた火種です。日本での火種の使命がある。誰でもイエスの内にあるならば、全ての人は新しくなる。火種を持って、この世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そして質疑応答の後、閉会礼拝に移り、李炫知会長の司会で、金鎮洪牧師が「ビジョンある教会になろう」（箴言29：18）と題で説教し、祝祷を持って修養会を終えた。

今年の修養会は、金牧師による心に響く講演により、女性会の働き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頑張れば、神さまは覚えてくださると確信を持つことができた。

（報告：俞貞恵 書記）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ご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101-0064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537-0025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 03-3233-0611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西南地方会＞ 沖縄教会 朴在徳長老将立式挙行

西南地方会は、山口県から沖縄までの約 1000 キロの距離にまたがっている地域にある 10 教会で構成されている。その最南端に位置する教会が沖縄教会である。その沖縄教会で、去る 11 月 3 日（主日）、朴在徳按手執事の長老将立式が執り行われた。長老将立式に参加するため、各教会での主日礼拝後、福岡空港に 24 人が集まり沖縄へ向かった。



長老将立式は、徐源亨担任牧師の司式で、辛治善牧師（別府教会）の祈祷、李恵蘭牧師（地方牧師）の聖書朗読後、権寧国牧師（福岡教会）が「ヨナの使命」という題で説教した。地方会書記である金聖孝牧師（熊本教会）より将立を受ける者の紹介後、地方会長金明均牧師（福岡中央教会）の司式によって誓約と按手に続き、宣言がなされた。

続いて、韓牧者会（在沖韓国人宣教師会）による特別讃美の後、新長老への勸勉を朱文洪牧師（小倉教会）、教会員への勧めを李相根長老（下関教会）がした。祝辞は、日本基督教団の竹花和成牧師（沖縄教区議長、首里教会）、金淑京牧師（韓牧者会会長、沖縄第一聖潔教会）、姜富子長老（西南地方会副会長、折尾教会）が各々語った。

さらに、新長老は答辞を通して、涙を流しながらその感動と感謝を述べた。最後に、崔正剛牧師（博多教会引退牧師）による祝祷をもって長老将立式を終えた。

（報告：朱文洪）



謹賀新年

2014 年！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福音新聞編集部



東京聖山キリスト教会 按手執事・勸士任職式 ＜呉要漢按手執事、李美子勸士、金榮善 勸士 任職式＞

・2013 年 11 月 17 日（主日）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永錫（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新刊 礼式書 改訂版

- ・韓国語・日本語対照
- ・すべての礼式に応用
- ・全国の個教会で活用可能
- ・1冊 2,000 円（送料別）
- ・お問い合わせ：総会事務局

03-3202-5398

＜第 11 回 北日本宣教会議＞ 日基教団 3 教区と関東地方会



去る 11 月 5 日（火）～6 日（水）、2 年前と同じく「岩手県 志戸平ホテル」で、日本基督教団の北海教区、奥羽教区、東北教区と関東地方会は、約 30 人が参加して、「第 11 回北日本宣教会議」を「宣教協力一連帯を生きる」（東日本大震災支援の中で）の主題のもとで開催された。

今回は、3.11 大震災以降、北日本の教区における 2 年間の被災支援活動の報告と今後の支援対策について話し合われた。北海教区は、「保養プログラム」によって、今までなかった繋がりが広がった。奥羽教区は、津波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教会のために物心両面に支援した。特に宮古教会の建築には、一人 100 円の献金を出し合う方法で、すべての人が携わって教会を再建した。東北教区は、教会救援復興委員会、被災者支援センター、そして放射能問題支援対策室などの組織をつくり、広範囲にわたって活動が展開されてきたことが報告された。その中で、支援センター・エマオと東北 HELP には、KCCJ の社会部と各教会も多く携わってきている。

そして注目すべきは、支援活動の方向と方針が緊急支援から中長期支援に変わっていくことである。その一環として、今までは国の指定によって行われていた甲状腺検査を教団が始めることであった。早速、12 月に仙台にて甲状腺検査を実施すると報告された。

さらに、RAIK の佐藤信行所長が、北日本 5 県の外国人住民を細かく分析した上で、被災を受けた形態と外国籍住民支援についてを細かく分けて発題した。（報告：朴正根）

＜第 14 回 宣教協力委員会＞ 日キ教会と在日大韓基督教会

去る 11 月 12 日（火）午後 2 時から日本キリスト教会と在日大韓基督教会の第 14 回宣教協力委員会が日本キリスト教会 柏木教会で開かれた。

今回は、去る 10 月の第 52 回総会で新しく選任された執行部（趙重來総会長、金性済・金永煥副総会長、趙永鉄副書記）と金柄鎬総幹事・千相鉉宣教委員長と総会事務局幹事（曹泳石、許伯基牧師）が出席し、日キ教会（高松牧人大会議長、上山修平大会書記、八田牧人渉外委員長、渡辺静子同委員、佐藤泰将同委員書記）との宣教協力の確認と方向を模索した。



開会礼拝は、金性済牧師の司会で、趙重來牧師が説教（ヘブ 13：18,19）してから、前会議録を確認した。そして日本キリスト教会の高松牧人牧師が、第 63 回日本キリスト教会大会（10 月 16 日～18 日、柏木教会）で 5 つの建議案が可決されたこと等を報告した。KCCJ では、金柄鎬牧師が WCC 参加・第 52 回総会での役員と委員会等を報告した。

引き続き、許伯基牧師が NEAAC について報告をした後、金性済牧師が「ともに生きる未来を見つめ」韓日教会青少年交流ツアーの計画と過程と結果について報告した。

さらに協議事項は、前回に引き続き「信仰継承の問題」、「両教会の宣教協力の内実化について」、「改定入管法・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応」、「自民党改憲案における「信教の自由・政教分離原則」問題」、「年金」等について協議した。閉会礼拝は、高松牧人大会議長が説教（エフェソ 2：14-18）した。（報告：編集部）



クリスチャン教会・企業検索サイト

レボト・ジャパン

Open!!

10 月 01 日

リニューアル

広告募集開始

<http://www.rehoboth.jp/>

レボトジャパン 検索



「レボト・ジャパン」
代表 斎藤 誠

Tel : 090-3945-3373

e-mail : info@rehoboth.jp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fukuinshinbun@kccj.jp (복음신문)
info@kccj.jp (총회사무국)

2014 년 신년 메시지

비록 어둠이 만민을 가릴지라도

(이사야 60:1-3)

조중래목사 (총회장, 후나바시교회)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못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 (Colonel Harland Sanders) 라는 사람은 6 살에 아버지를 잃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린 두 동생들에게 요리를 해 먹이며 집안일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동안 모아 둔 돈으로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날로 번창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1 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식당 앞에 고속도로가 생겨 손님이 뜸 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65 세, 주머니에 있는 돈은 사회보장금으로 받은 105 달러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꿈꾸어 왔던 요리를 개발하여 식당에 보여 주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며 계속 연구하며 도전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길 1008 번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1009 번째였습니다. 그가 만든 요리를 사겠다는 식당이 나타났습니다. 요리를 맛 본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KFC 1 호 점이 탄생케 된 것입니다.

KFC 는 지금 전 세계에 매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을 노년이 되었어도, 천 번 이상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자기의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많지 않다 인생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다.” 세상에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낙심하는 자에게 꿈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성취 될 것을 알려 주신 말씀입니다. ‘홀 어졌던 자녀들이 몰려오게 되고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이며 큰 낙타 떼가 땅을 덮을 것이며,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올 것이며 그들이 가져온 보물로 나라는 은금이 풍족하고 모두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케 될 것’ 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선택된 민족으로 회복되며 복의 샘이 되며 감격과 환희가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를 받아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였기에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2 절). 이에 대해 하나님은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어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일어난 자에게는 얼마 후 귀환을 누리게 되었으며,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 이를 믿는 자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이 불가능하다 해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얻으며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9 년 1 월 골수암으로 8 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분위기는 무척 차갑고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 바다에 빠졌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다를 걸었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입니다. 하지만 어둠도 곳곳에 보일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교단에도 나라 및 세계 곳곳에도 어둠이 보일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한 해 여정 속에는 돌부리에 채여 넘어 짐도 있고, 비바람 몰아치는 캄캄한 눈물의 밤도 있고, 열매 하나 없는 숙성한 어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네 위에 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1,2 절, 공동번역)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만은 우리에게 빛을 비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어둠이라도 반드시 빛을 비추셔서 환희가 되게 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해도, 사망의 위험한 길을 다닐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정이 아무리 캄캄해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만일 빛이 없어 고통 받는 자가 있다면 주께 받은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천 번이라도 주님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이 땅 전역에 낙심치 말고 비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민이 빛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웃에게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이 땅을,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록 어둠이 만민을 가릴지라도 ...’ 주님 말씀입니다.

밝아 온 희망찬 새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2014 년 되시길 바랍니다.

<서남지방회> 오키나와 수양회 예언, 환상, 꿈을 주제로



서남지방회 (야마구치현 + 큐우슈우 7 현 + 오키나와 = 10 교회, 1 개의 개척전도) 에서는 지난 11 월 3 일 (주일) ~ 4 일 (월) 에 교육부 주최로 오키나와교회에서 “예언 · 환상 · 꿈!” 이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거행하였다.

오키나와가 문제로 안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과 오키나와 전쟁에서 희생 된 조선인 (1 만 여명) 들의 위령비 등을 둘러보는 현장 연수와 일본기독교단 오키나와교구와의 교류회도 가졌다. 또한 큐우슈우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는 오키나와교회 교인들과의 교류와 금번 11 월 3 일에 장로로 장립 된 박재덕장로의 축하도 겸한 여행과 수양회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수양회가 되었다. 참가자는 24 명이었다.

먼저 오키나와교회 담임목사인 서원형목사는 강사로서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종종 실망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실망 하실까” 라고 참가자들에게 신앙의 관점을 물었다. 또한 “우리는 서두르는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에서 만사를 도모하는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특별 강연에서는 오키나와교회의 박재덕장로 (名桜大学 국제학부 준교수, 관광학) 가 오키나와와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비교하면서, 오키나와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왕조 시대부터 교류가 있었던 친절한 사람이었음을 밝히면서, 일본의 에도막부에게 당한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라면서 열변을 토했다.

이틀간 오키나와 교회 여성회원들의 진심을 담은 환대와 신선한 말씀들, 더 나아가 아시아의 바람과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자연 등을 만끽한 은혜로운 수양회였다. (보고: 주문홍)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 제 26 회 수양회 개최

지난 11 월 5 일 (화) 에서 6 일 (수) 간 서부지방회에서는 여성연합회 주최로 제 26 회 수양회가 코오베 (シーパル須磨) 에서 개최되었다. 강사는 한국의 두레마을 설립자이자 두레교회 설립자인 김진홍목사를 맞이하여 65 명이 참가하였다.

개회예배는 최미예코 (崔美恵子) 부회장의 사회로 양영우목사가 “지금도 하나님은”(사사기 6:7-10)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에 시온성가대의 특별찬양과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강사인 김진홍목사는 제 1 강의를 <공동체의 신앙> 라는 주제로 “영적으로 살자”(로마서 8:12-14) 라는 제목을 붙여서 빈민촌 두레마을에서의 일을 추억하면서 “고난의 때 일수록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고 강조하였다.



제 2 강의에서는 정현길목사 (히메지야수교회) 의 특별 찬양 후에 김진홍목사는 “성령의 불씨가 되자”(눅 12:49)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씨입니다. 일본 불씨의 사명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은 새로워진다. 불씨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이 있는 후에 폐회예배를 하였는데, 이현지회장의 사회로 김진홍목사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자] (잠언 29:18)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축도로 수양회를 모두 마쳤다.

올해 수양회는 김진홍목사의 마음을 울리는 강연으로 인하여 여성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보고: 유정혜 서기)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税 込	平 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06-6981-0782

<서남지방회> 오키나와교회 박재덕 장로장립식 거행

서남지방회는 아마구치현에서 오키나와까지 약 1000 킬로미터 거리에 걸쳐있는 지역에 소속한 10 교회로 구성되어있다 그 최남단에 위치한 교회가 오키나와 교회이다. 이 오키나와교회에서 지난 11 월 3 일 (주일), 박재덕 안수집사의 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장로 장립식을 축하하기 위해 각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한 후에 후쿠오카 공항에 24 명이 모여 오키나와로 향했다.



먼저 서원형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신치선목사 (벧부교회) 가 기도를 한 후에 이혜란목사 (지방목사) 가 성경을 봉독하고, 권영국목사 (후쿠오카교회) 가 “요나의 사명”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서남지방회 서기인 김성효목사 (쿠마모토 교회) 가 장로로 장립을 받는 박재덕안수집사를 소개한 후에 지방회장인 김영균목사 (후쿠오카 중앙교회) 의 사식으로 서약과 안수에 이어 장로장립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한목자회 (재오키나와 한국인 선교사회) 의 특별찬양 후에 새로운 장로를 위하여 주문홍목사 (코쿠라교회) 가 권면을 하였으며, 교인들을 위한 권면은 이상근장로 (시모노세키 교회) 가 하였다. 축사는 일본 기독교단 오키나와교구 원장인 竹花和成목사 (首里教会), 김숙경목사 (한목자회회장, 오키나와 제일성결교회), 강부자장로 (서남 지방회부회장, 오리오교회) 가 각각 전했다.

계속해서 새롭게 장립된 박장로는 답사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동과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정강목사 (하카타교회 은퇴목사) 의 축도로 장로장립식을 은혜롭게 마쳤다. (보고: 주문홍)



謹賀新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음신문 편집부

YMCA クリスマスのタベ



2013年12月8日



동경성산그리스도교회 안수집사 / 권사 임직식

< 오요한 안수집사, 이미자, 김영선 권사 임직식 >
2013 년 11 월 17 일 (주일)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신간 예식서 개정판

礼式書



在日大韓基督教會

- 한국어 일본어 대조
 - 모든 예식에 적용
 - 전국 개교회에서도 활용
 - 1 권 2,000 엔 (송료別)
 - 문의: 총회 사무실
- 03 - 3202 - 5398

<제 11 회 일본 선교회의> 관동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 3 교구



관동지방회는 지난 11 월 5 일 (화) 에서 6 일 (수) 간 2 년 전에 열렸던 (岩手県 志戸平ホテル) 곳에서 일본기독교단의 북해교구, 오구교구 (奥羽教区), 동북교구와 관동지방회는 약 30 명이 참여하여 < 제 11 회 일본선교 회의 > 가 [선교협력 - 연대로 살아간다 -] 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금번은 3.11 대지진 이후 일본 북부 교구에서의 2 년 동안의 재해 지원 활동보고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북해교구는 < 보양 프로그램 > (保養プログラム) 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없었던 연결이 넓어졌다. 오우교구는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는데, 특히 미야코교회 (宮古教会) 의 건축에 수억 엔의 큰 금액을 각자가 100 엔의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교회를 재건하였다. 동북교구는 교회 구원부흥위원회와 피해자 지원센터와 더불어 방사능 문제 지원대책 실 등의 조직을 만들어 광범위 한 활동을 해 온 것이 보고되었다. 그 중에서 지원 센터 엠마오와 동북 HELP 에는 KCCJ 의 사회부와 각 교회도 봉사에 많이 참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중장기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국가의 지정에 의해 수행 된 갑상선 검사를 일본기독교단이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빠르게는 12 월 중에 센다이에서 갑상선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RAIK) 의 사토노부유키 소장은 일본 5 현의 외국인 주민 피해와 외국 국적 주민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하였다. (보고 : 박정근목사)

<제 14 회 선교협력위원회> 일본기독교회 카시와기교회에서

지난 11 월 12 일 (화) 오후 2 시부터 일본기독교회 카시와기교회 (柏木教会) 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회의 제 14 회 선교협력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난 10 월에 열린 제 52 회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 (조종래총회장, 김성제, 김영환부총회장, 조영철부서기) 와 김병호총간사, 천상현선교위원장과 총회 간사 (조영석, 허백기 목사) 가 출석하여 일본기독교회 (高松牧人대회의장, 上山修平대회서기, 八田牧人섭외위원장, 渡辺静子섭외위원, 佐藤泰将섭외위원회 서기) 와의 선교협력 확인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개회예배는 김성제목사의 사회로 조종래목사가 설교 (히브리서 13:18,19) 를 하였으며, 전회의록을 확인하고 타카마즈마키토 (高松牧人) 대회의장이 일본기독교회 제 63 회 대회 (10 월 16-18 일, 카시와기교회) 에서 5 개의 현의안이 가결된 것 등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김병호총간사가 제 52 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각 위원회와 위원장 등을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허백기목사가 NEAAC 에 대하여, 김성제목사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일교회 청소년 교류 투어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였다.

협의사항에서는 < 신앙계승의 문제 >, < 양교회의 선교협력 내실화에 대하여 >, < 개정입관법과 hate speech 에 대한 대응 >, < 자민당 개헌안에 있어서의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문제 >, < 연금 >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폐회예배는 타카마즈마키토 대회의장이 설교 (에베소서 2:14-18) 하였다. (보고 : 편집부)



クリスチャン教会・企業検索サイト

レボト・ジャパン

Open!!

10月01日

リニューアル

広告募集開始

Tel : 090-3945-3373
e-mail : info@rehoboth.jp

「レボト・ジャパン」
代表 玄永徳

http://www.rehoboth.jp

レボトジャパン 検索

